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고찰

- 「第三夜」·「第四夜」를 중심으로 -

權赫建*·全修盡**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第三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4. 「第四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5.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6. 결론
-

1. 서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전기삼부작의 『그 후(それから)』·『문(門)』과 후기삼부작의 『마음(こころ)』 등의 작품 주인공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태어난 아이가 죽거나 유산·조산·사산하는 불길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 있어 독자들에게 아이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소세키는 지금으로부터(2005년 기준) 97년 전인 1908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夢十夜』를 도쿄(東京)·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시켰다. 도쿄의 무덥고 끈적거리는 한 여름날에 『夢十夜』는 쓰여졌던 것이다. 『夢十夜』의 「第三夜」와 「第四夜」에는 태어난 아기가 죽거나 유산, 조산 사산하는 불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의 양상이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夢十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이라는 테마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특히 「第三夜」·「第四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작품 속에서 아이가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대문학

** 동 대학 대학원생 일본근대문학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고 어떠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분석해 보겠다. 본 연구는 나쓰메 소세키 문학에 묘사된 「아이의 특이한 양상과 존재」 등을 밝혀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선행연구

이제까지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발표된 『夢十夜』 연구물은 적어도 500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夢十夜』에 관한 연구물은 37편 이상이다.

『夢十夜』 「第三夜」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작고한 뒤 『漱石全集』을 편집하여 출판시켰던 고미야 토요타카(小宮豊隆) 씨를 비롯한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나쓰메 소세키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9년에 이토 세이(伊藤整) 씨는 소세키문학(漱石文學)에 있어서 『夢十夜』는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논했다. 그리고 『夢十夜』에는 인간존재의 원죄적(原罪的)인 불안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夢十夜』 「第三夜」에 대하여 논한 것은 아니지만 『夢十夜』에 대하여 논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고전 같은 연구물로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¹⁾

또한 1953년에 아라 마사히토(荒正人) 씨는 「소세키의 어두운 부분(漱石の暗い部分)」이라는 논문을 통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夢十夜』 「第三夜」의 골격을 「부친 살인」으로 해독했다. 그리고 「第三夜」의 결말에서 장님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식(罪意識)이 자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많은 작품에 기조(基調)가 되고 있는 죄악감(罪惡感)의 원형(原型)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²⁾

그밖에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第三夜」에 관한 연구물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논문은 「第三夜」와 일본 민속학(民俗學)·민화(民話)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한 아이하라 가즈쿠니(相原和邦) 씨의 「『夢十夜』 시론-第三夜の 배경-」(1976) 등이 있다.

한국인 연구자에 의하여 발표된 『夢十夜』에 관한 연구물 가운데 「第三夜」를 테마로 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논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최명희 씨의 「『夢十夜』-「第三夜」論-時間表現を中心に-」(『日本學報』43, 한국일본학회, 1999)와 권혁건 씨의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三夜」와 동아시아문학 비교 연구」(『日本文化學報』, 2004) 등이 있다

1) 伊藤整 「解説」(『現代日本小説大系』第16卷, 河出書房, 1949.05) 417 면 참조

2) 荒正人 「漱石の暗い部分」(『近代文學』12月号, 近代文學社, 1953.12) 48 ~50 면 참조

『夢十夜』 「第四夜」에 관련 있는 선행 연구물 가운데 주목되는 논(論)은 니시무라 요시코(西村好子) 씨의 『산책하는 소세키-시와 소설의 사이(散歩する漱石-詩と小説の間)』이다. 니시무라 요시코 씨는 『산책하는 소세키-시와 소설의 사이』라는 저서를 통해 『筥笈引』과 그것에 대한 「주(注)」를 참조하여 『夢十夜』 「第四夜」를 분석했다 즉 「第四夜」의 노인이 하얀 수염을 하고 허리에 호리병을 매달고 있는 것은 『筥笈引』과 디테일이 서로 닮았다고 주장했다.³⁾

한국인 연구자에 의하여 발표된 「第四夜」를 테마로 해서 고찰한 논문은 권혁건 씨의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 「第四夜」와 한국 고전문학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비교」가 있을 뿐이다. 권혁건 씨는 위의 논문을 통해 『夢十夜』 「第四夜」와 『公無渡河歌』 두 작품에는 「입수(入水)에 의한 죽음에는 목격자가 있다는 점, 「죽음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술을 좋아하는 주인공 남자가 등장하고 있는 점, 「약기와 그 약기를 다룰 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점」 등 구성상의 많은 유사점(類似點)과 두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고찰- 「第三夜」· 「第四夜」를 중심으로 -」와 똑같은 연구 테마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第三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夢十夜』 「第三夜」는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부친의 이야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인 스토리(story)는 부친이 여섯 살 난 눈먼 아이를 업고 밤길을 걸어가면서 아이와 나누는 이야기이다.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눈이 멀었고 머리가 까까머리이다」라는 내용으로 작품 초반부가 시작되고 있다.

아이의 부친의 자식임에 틀림없으나 부친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되어 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애임에 틀림없으나 말투는 어른 같다 여섯 살짜리 눈먼 아이가 어른의 말투를 하고 있는 것도 부친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어른의 말투를 쓰는 눈먼 아들을 자신의 등에 업고 해오라기 그림자가 어둠 속에 비치는 비 내리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친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은 처음부터 까닭 모를 불안과 걱정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이의 말을 통해 부친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장면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등에 업힌 아이는 「눈에 접어들었구면」 하고 등뒤에서 부친에게 말했다. 부친은 「어떻게 알지?」 하고 얼굴을 뒤로 돌리듯이 하고 묻자 「해오라기가 울잖아」 라고 대답했

3) 西村好子 『散歩する漱石-詩と小説の間』(翰林書房, 1998,09) 94~98면 참조.

다. 그러자 해오라기가 과연 두 번 정도 올었다 부친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식을 갑자기 무섭게 생각한다.

「第三夜」의 부친의 등에 업힌 장님 아이는 미래에 벌어질 사실과 현상을 미리 지각하고 정확히 알아 맞추는 초감각적 예지능력(豫知能力)을 갖추고 있다. 부친은 이런 자식을 업고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버릴 곳을 찾게 된다. 두리번거리면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자 큰 숲이 눈에 들어 왔다. 부친은 그곳에 아이를 버리려고 생각한다.

둘째, 아이는 다시 「아버지 무거워?」라고 묻는다. 부친이 「무겁지 않은데」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곧 무거워질걸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는 「돌이 서 있을 거야」라고 말한다. 아이의 말대로 네모난 여덟 치 되는 돌이 허리 정도의 높이로 서 있었다. 돌의 표면에는 「왼쪽 히가쿠보(左)日ヶ窪), 오른쪽 훗타하라(右堀田原)」라고 쓰여 있다.

아이는 「왼쪽이 좋을 거야」라고 명령조로 부친에게 말한다. 왼쪽을 보자 숲이 검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친은 멈칫거렸다. 그러자 아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라고 다시 말했다. 부친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식이 말하는 대로 숲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장님은 불편해서 안되겠어, 「엄하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해서 안되겠어. 부모마저도 바보 취급하니까 말이야」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부친은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싫어졌다. 빨리 숲 쪽으로 가서 자식을 내버릴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셋째, 아이는 「좀더 가면 알게 돼. 바로 이런 날 밤이었지」하고 혼잣말처럼 말한다. 부친은 「뭐가?」라고 다급한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뭐라니. 알고 있잖아」하고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린다. 부친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자신의 자식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낀 부친은 자식이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 자식이 모르는 순간에 아이를 버리려고 발길을 재촉한다.

넷째,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길이 점점 어두워지자 부친은 마음이 더욱 불안정해진다. 특히 등뒤에 달라붙어 있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날날이 비추어 한치의 사실도 놓치지 않는 거울처럼 번득이고 있다는 사실에 부친은 참을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다섯째, 등뒤의 아이는 빗속에서 「여기다. 여기. 바로 저 삼나무 뿌리 있는 데다」라고 말한다. 아이의 말에 부친은 자신도 모르게 멈추어 섰다. 어느덧 숲 속에 들어와 있었다. 아이가 말한 대로 한 칸 정도 앞에 있는 검은 것은 분명히 삼나무처럼 보였다. 아이는 「아버지, 저 삼나무 뿌리 있는 곳이었지」하고 말하자 부친은 「응, 그랬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해 버렸다. 아이는 「네가 나를 죽인 것은 지금부터 꼭 백년 전이었지」하고 말한다. 부친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문화(文化) 5년 진년(辰年)에도 시대의 연호, 1808년)의 이런 캄캄한 밤에 이 삼나무 뿌리에서 한사람의 장님을 죽였다고

하는 자각이 홀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부친은 자신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 등뒤의 아이가 돌부처처럼 무거워졌다.⁴⁾

부친은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이런 캄캄한 밤에 이 삼나무 뿌리에서 한사람의 장님을 죽였다는 자각이 홀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아이는 냉정하게 자신의 부친에게 장님 살인을 자각하게 만들고 있다. 부친은 실제로는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님을 살인했다고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친이 자신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칼을 뽑아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자각이 아닌 것이다. 부친이 장님 살인자로 자각하고 있는 것은 부친이 실제 행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정신 속에 깃들은 오랜 옛날의 장님 살인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살인죄를 범하고 살아오면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친은 아이의 지적에 따라 살인자였다는 것을 깨닫게되었던 것이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등뒤에 엮힌 자신의 아이가 돌부처처럼 무겁게 느낀다. 부친은 자신이 살인자였다는 아이의 지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죄의식(罪意識)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등에 엮힌 아이가 백년 전 자신이 죽인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무기를 갖고 죽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누군가가 저지른 죄와 살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第三夜」의 부친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을 아들의 말을 통해 「장님 살인자」였다는 것을 갑자기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친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죄악감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일종의 「업(業)의 사상」· 「윤회(輪廻) 사상」에서 온 사고(思考)라고 판단된다. 「업 業」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업 業」은 현세(現世)뿐만 아니라 내세(來世)에도 응보(應報)를 받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前世) 선악의 소행에 의해서 현세에 받는 응보가 업인 것이다.⁵⁾

위와 같이 다섯으로 구분하여 「第三夜」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아이의 말을 통해 부친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친에게 있어서 아이는 「두려운 존재」· 「자신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존재」· 「공포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第三夜」에 묘사된 아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분석해 보면, 이제 여섯 살이 된 아이는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인 전생(前生)에서 부친에게 살해당한 아이로써 현생(現生)에서 한번 더 부친에게 유기(遺棄) 당하려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4) 夏目金之助 『漱石全集』12, (岩波書店, 1994, 12) 652~653면 「注解」 참조

5)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三夜」와 동아시아문학 비교 연구」(『日本文化學報』제2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08) 202~211면 참조.

4. 「第四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夢十夜』 「第四夜」의 초반부 내용은 넓은 봉당 한 가운데에 평상 같은 것이 있고 그 주위에 작은 의자가 있는데 노인이 한쪽 구석에서 조림을 안주 삼아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구조이다. 노인은 술을 꽤 마신 탓인지 얼굴이 빨개져 있다. 얼굴에 주름살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을 정도로 팽팽하지만 흰 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노인(爺さん)」과 노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나(自分)」라고 하는 아이이다. 물론 등장 인물이 「나」와 「노인」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막집 부인(神さん)과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서너 명도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와 「노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아이의 심리변화 과정과 행동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아이는 노인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심리 변화과정을 분석·점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나」라고 하는 아이가 「노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과 기대를 가지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이인 「나」는 하얀 수염을 잔뜩 기르고 있는 이 「노인」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 하고 생각한다. 마침 주막집 부인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면서 「할아버지는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다. 「노인」은 주막집 부인의 질문에 대해 술안주인 조림을 꿀꺽 삼킨 후 「몇 살인지 잊어버렸네」 하며 탄성을 띤다.

둘째,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주막집 부인이 이번에는 「할아버지네 집은 어디세요?」 라고 묻는다. 「노인」은 기다란 숨을 도중에 끊더니, 자신의 집이 「배꼽 속이라네」 라고 대답한다.

셋째, 주막집 부인은 좁은 허리띠 사이에 손을 꽂은 채로 「어디로 가는지요?」 재차 「노인」에게 묻는다. 그러자 「노인」은 또다시 커다란 사발 같은 그릇으로 뜨거운 술을 꿀꺽 마시고는 아까와 같이 숨을 휴~우 하고 내쉬더니 「저쪽으로 간다네」 하고 말했다.

넷째, 「노인」은 바깥으로 나갔다. 「나」는 노인의 주술적인 말과 행동에 매료된 이후로는 「노인」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노인」의 뒤를 쫓아 「나」도 따라 나갔다. 「노인」은 허리에 작은 호리병을 매달고 어깨에는 네모난 상자를 매달고 있다. 「노인」은 버드나무 아래까지 갔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서너 명 있었다. 「노인」은 「나」와 아이들이 서너 명 있는 곳에서 하늘색 수건을 꺼내서는 땅 한가운데에다 놓았다. 수건 주위에 커다랗고 둥근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는 어깨에 멘 상자 속에서 낫쇠로 만든 엇장수 피리를 꺼내 들고는 「이제 그 수건이 뱀이 될 테니까 보고 있거라. 보고 있거라」 하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이들과 「나」는 열심히 수건을 보고 있었다

「나」와 그 곳에 있었던 서너 명의 아이들은 수건이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려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수건이 놓인 곳 둘레의 동그라미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수건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수건은 좀처럼 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노인」의 행동이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뻘뻘 소리를 내며 피리를 불어댔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를 몇 번이고 돌았다. 얼마 후 「노인」은 피리를 툇 그쳤다. 그리고 어깨에 멘 상자 뚜껑을 열더니 수건을 살짝 손가락으로 집어 상자 속에 획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해 두면, 상자 속에서 뱀이 된다. 금새 보여주마. 금새 보여주마」 라고 말하면서 버드나무 아래를 지나 좁은 길을 따라 똑바로 내려갔다.

원래 동아시아에서의 뱀(蛇)은 선과 악의 양면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가장 영성(靈性)이 강한 생물이거나 악(惡)의 화신(化身)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⁶⁾

「나」라고 하는 아이는 동아시아에서 선과 악의 양면을 상징하고 있는 뱀이 보고 싶어서 「노인」이 걸어가는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다. 그러나 수건은 좀처럼 뱀이 되지 않았다. 노인은 좁은 길을 지나 「금방 된다. 뱀이 된다. 틀림없이 된다. 피리소리가 난다」 라고 노래 부르며 마침내 강가로 나왔다. 그러나 수건은 좀처럼 뱀이 되지 않았다. 「노인」은 좁은 길을 지나 「금방 된다. 뱀이 된다. 틀림없이 된다. 피리소리가 난다」 라고 노래 부르며 마침내 강가로 나왔다.

다리도 배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쉬고 나서 「상자 속의 뱀을 보여 주겠지」 하고 「나」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침병 침병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물이 처음에는 무릎정도 깊이였는데 허리에서 가슴까지 점점 물에 잠겨 「노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노인」은 「깊어진다. 밤이 된다. 똑바로 된다」 라고 노래 부르며 강물 속으로 더욱더 깊이 걸어갔다. 그러고는 수염도 얼굴도 머리도 두건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나」는 「노인」이 맞은편 강둑에 올라갔을 때 뱀을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하며 갈대가 있는 곳에 홀로 서서 기다리지만 「노인」은 강물 속으로 모습을 감춘 채 결국 올라오지 않았다.

「노인」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第四夜」의 후반부는 초반부에 비교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주고 있다. 때문에 오타케 마사노리(大竹雅則) 씨는 「노인」의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이 죽어 가는 모습은 바로 인간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논하면서 「노인」의 죽음은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비애이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논했다.⁷⁾

「第四夜」의 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6) ジュメビエーラ・沙羅/小泉茉莉花 『夢占い』(ナツメ社, 1996, 7) 281 면 참조

7) 大竹雅則 『『夢十夜』 - 生のかなしみ -』(『夏目漱石論叢』, 櫻楓社, 1988,05) 116 면 참조

「노인」은 어깨에 멘 상자 속에서 옛장수 피리를 꺼내서는 아이들과 「나」에게 「이제 수건이 뱀이 될 테니까 보고 있거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해도 수건이 뱀이 되지 않자 피리불기를 그친 「노인」은 어깨에 멘 상자 뚜껑을 열더니 수건을 손가락으로 집어 상자 속에 넣었다. 「이렇게 해두면 상자 속에서 뱀이 된단다. 금새 보여주마」 하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수건이 뱀이 될 리가 없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깊어진다 밤이 된다」 라고 노래 부르며 강물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만 것이다.⁸⁾

위와 같이 「나」 라고 하는 아이가 「노인」의 말과 행동에 기대하면서 주시한 것을 빛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第四夜」의 「나」는 「노인」의 말과 행동을 굳게 신뢰하여 호기심과 기대, 믿음을 가졌으나 결국 「노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노인」에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기대는 실망(失望)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노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망감과 함께 허탈감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나」 라고 하는 아이의 신뢰와 기대가 「노인」의 언행을 통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낼 수 있었다.

5.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5.1 공통점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되어 있는 공통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으로는 「第三夜」와 「第四夜」 모두 어른과 아이를 주축으로 한 꿈의 전개 양상을 보임으로 해서 연령적으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第三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父子) 관계를 이루고 있고, 「第四夜」에서는 「노인」과 아이라는 노소(老少) 관계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어 연령적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다.

둘째,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자(弱者)적 위치에 있으며 피동(被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第三夜」의 아이는 연령적으로 여섯 살이 어린 아이인데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다. 아이는 신체 조건에 있어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다. 장님인지라 부친의 등에 업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

8) 권혁건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 「第四夜」와 한국 고전문학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비교」(『일본어문학』 제1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2,03) 166 면 참조

이다. 부친의 다리가 없으면 자신이 목적인대로 걸을 수가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피동적인 존재이다.

한편, 「第四夜」의 아이는 수건을 뱀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노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노인」에게 기만당했으나 육체적으로 성인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가, 어딘가에 하소연 할 줄도 모른 채,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노인」보다 육체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충격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第三夜」의 아이는 현재 자신을 업고 있는 부친에게 백 년 전에 살해당한 장님으로써 현재에서는 유기 당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 유기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생명의 위협이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 그 어떤 것 보다 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第四夜」의 아이도 「노인」의 언행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기만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즉, 노인의 말과 행동에 기대를 하고 끝까지 노인을 따라다니며 수건이 뱀이 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그 기대는 노인이 물 속으로 사라짐으로서 허탈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5.2 차이점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되어 있는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第三夜」의 아이는 표면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예지능력을 갖추고 강인한 발언을 표출시키고 있다.

「第三夜」의 아이는 『夢十夜』의 다른 어느 꿈 이야기의 아이들 보다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가장 강도 높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에 비례하여 가장 강력한 발언권(發言權)과 예지능력(豫知能力)을 지녔다. 즉, 눈 먼 아이라는 연약한 모습 속에 부친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를 갖고 상황을 전개 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부친의 판단력마저 지배하여 결국에는 부친이 잊고 있던 살인자의 과거를 조우(遭遇)시킴으로 인해 그 동안 자신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第三夜」의 아이는 백 년 전 현재의 부친에게 살해당한 장님으로 부친의 등에 업혀 있지만 「第四夜」에 등장하는 아이와는 말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第三夜」의 아이의 말투에서는 조금도 어린이다운 면이나 순수한 면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아이는 부친과의 대화에 있어서 부친을 예우(禮遇)하거나 존대(尊對)하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부친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짓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감에 넘쳐있다.

한편, 「第四夜」의 아이는 「第三夜」의 아이와는 달리 아이다운 순진(純眞), 무구(無垢)

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第四夜」의 아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아이다운 순진함을 간직하고 있다. 「노인」이 수건을 뱀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말에 순진하게 「노인」의 말을 믿어 수건이 뱀이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가에 서 있는 모습에서 때문지 않은 아이다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6. 결론

위와 같이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에 묘사된 아이의 양상 고찰- 「第三夜」·「第四夜」를 중심으로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자가 이제까지 고찰한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第三夜」의 아이는 부친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다. 부친이 아이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근본 원인은 자신의 등에 업힌 눈먼 아이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현상을 미리 지각(知覺)하고 정확히 알아 맞추는 초감각적 예지능력(豫知能力)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아이 쪽에서 분석해보면 「第三夜」 묘사된 장님 아이는 전생(前生)에서 부친에게 살해당한 아이로써 현생(現生)에서 한번 더 부친에게 유기(遺棄) 당하려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둘째, 「第四夜」는 「나」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 「노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과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아이의 기대가 기만(欺瞞)당하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다. 아이는 「노인」의 말과 행동에 호기심과 믿음, 기대를 가졌으나 「노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노인」에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기대는 실망(失望)으로 끝난 것이다. 「수건이 뱀이 된다」고 하는 「노인」의 말은 처음부터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아이는 「노인」의 행동에 믿음과 호기심을 갖고 인간의 「절대적인 힘」·「초월적인 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결국 아이는 노인의 죽음에 의해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실현 불가능해지게 된다.

셋째,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되어 있는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는 연장자와 연소자로 연령적 대립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른에 비해 육체적으로 약자(弱者)적 위치에 있고 피동(被動)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충격 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넷째,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되어 있는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三夜」에 묘사된 아이는 부친의 과거의 죄를 폭로하는 과정을 통해 부친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아이는 표면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예지능력을 갖추고 부친에게 강인(強韌)한 발언을 표출시키고 있다. 즉, 「第三夜」에는

아이의 육체에 어른의 정신이 깃든 것 같은 모습을 지닌 아이로 묘사되어 있다. 아이의 이러한 모습은 「第四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第四夜」의 아이는 노인이 수건을 뱀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순진하게 믿어, 수건이 뱀이 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第三夜」와 「第四夜」에 묘사된 아이를 비교해보면 「第四夜」에 묘사된 아이가 순진, 무구한 아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꿈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어른들로부터 살해당하고 기만당하는 독특한 아이의 양상을 그린 작품 묘사 방법은 소세키 문학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문학에 있어서도 특이한 현상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 권혁건(2002) 「나쓰메 소세키 작품 『夢十夜』 「第四夜」와 한국 고전문학 『公無渡河歌』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 비교」, 『일본어문학』 「제1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 166.
- 권혁건(2004) 「나쓰메 소세키의 『夢十夜』 「第三夜」와 동아시아문학 비교 연구」, 『日本文化學報』 「제22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 202 ~211.
- 荒正人(1953) 「漱石の暗い部分」, 『近代文學』 「12月号」, 近代文學社, PP. 48 ~50.
- 伊藤整(1949) 「解説」, 『現代日本小説大系』 「第16卷」, 河出書房, P. 417.
- 大竹雅則(1988) 「『夢十夜』 - 生のかなしみ -」, 『夏目漱石論攷』, 櫻楓社, P. 116.
- ジュヌビエーラ・沙羅/小泉茉莉花(1996) 『夢占い』, ナツメ社, P. 281.
- 夏目金之助(1994) 『漱石全集』 「12」, 岩波書店, PP. 652~653, 「注解」.
- 西村好子(1998) 『散歩する漱石 - 詩と小説の間』, 翰林書房, PP. 94 ~98.

要 旨

論者がこれまで考察したももの中で核心的な内容を以下に要約した。

第一に、「第三夜」の子供は父親に恐怖と不安感を抱かせるという形で描寫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父親が子供に恐れを感じた根本原因は、自分が負ぶっている目の見えない子供が、自分の過去にあった事實、現在、そして未來に起きる現象を前もって知覺し、言いあてる超感覺的予知能力を備えていることであった。

第二に、「第四夜」は「自分」という子供が主人公の「爺さん」の言動を信じ、期待を抱いたが、結局子供の期待が裏切られるという形で描寫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子供は「爺さん」の言動に好奇心と信賴、期待を抱いたが、「爺さん」の死を目撃することになる。それにより「爺さん」に對する「自分」の信賴と期待は失望に終わる。「手拭か蛇になる」という「爺さん」の言葉は初めから彼の能力ではとうてい不可能だったのである。

第三に、「第三夜」と「第四夜」との共通点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大人と子供は年長者と年少者という年齢的な對立構造として構成されており、子供は大人たちに較べ肉体的に弱者の位置にあって受動的立場を取っている。また、子供は大人たちの行動を通して精神的に衝撃を受ける者として描かれている。

第四に、「第三夜」と「第四夜」との相違点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第三夜」に描かれた子供は父親の過去の罪を暴露する過程を通じて父親に恐怖と不安を抱かせている。また「第三夜」の子供は表面的には軟弱な様子だが、内面的には予知能力をもって父親に強靱な言葉を發する子供として描寫されている。「第四夜」の子供は「爺さん」の手拭を蛇に変えてみせるといふ言葉を疑いもせず純眞に信じ、手拭か蛇になるのをひたすら待ち續けている。即ち、「第三夜」の子供は非常に早熟であり、早熟と言うよりは子供の肉体に大人の精神が宿っているかのような姿に描かれているのに較べ、「第四夜」に描寫された子供は純眞、無垢であるという相違点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夏目漱石, 夢十夜, 第三夜, 第四夜, 子供, 様相, 不安, 欺滿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1. 연구책임자: 권혁건

住 所 : (609-761)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14 번지 선경아파트 308-1302

電 話 : 051-514-3187

e-mail : kwon6134@hanmail.net

2. 공동연구원: 전수진

住 所 : (614-714)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51-890-1770

e-mail : 99ao126@hanmail.net